

本稿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제11회 國際發明品 展示會에 自身의 發明品인 活線作業 工具 「允和Pin」과 「絶緣電線피박기」를 出品, 荣譽의 金賞과 準金賞을 차지하는 한편 UN산하 發明機構가 주는 特別賞인 WIPO賞(世界 저작所有權 보호기구상)을 안고 개선한 바 있는 韓電研修院 洪允和교사의 發明品을 品目別로 說明한 글이다.

〈註 編輯者〉

## 머릿말

본 공구는 가압 송전중인 22.9kV-y D/C이상이 충전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활선작업 공구이다. 현재까지는 본 활선공구가 없어서 전선로를 휴전시키지 않고는 활선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일상 생활 내지 국가의 중요한 생산업체에 정전공사로 인한 유형 무형의 지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 실정에서 이 공구를 사용하므로 가압 송전된 상태에서도 활선작업을 시행하여 무정전 전력공급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세계적인 선진국에서도 22.9kV-y D/C이상에서는 충전부에 잠바선을 직접 연결시키지 못하고, 3단계 조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후 또 휴전시에 재차 작업을 해야 하므로 2종류 작업시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이 지대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66kV 이상의 변전소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써머비존」으로는 가열된 사고개소를 발견하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신설, 증설시 또는 「Heating」 개소를 처리할 때 실제적인 활선공사가 불가능했던 것을 본인이 발명한 「운화Pin」의 13개 품목의 활선공구를 사용하여 66kV 이상 154kV 까지 활선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내적 실정으로 보면, 이제까지 정전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했던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금액을 이 공구를 사용실시 함으로써 이득금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공구는 송·변·배전 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활선공구이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절연전선을 사용하게 된 이후 절연전선의 피막재질이 포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연질성을 띠나 겨울철에는 경질로 변하여 락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피박기로서는 겨울에는 정전상태에서도 피박이 불가능했다. 7,000V 이상 특고압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발명품 「특고압 전선의 피박공구」이다.

이 「특고압 전선의 피박공구」를 절연봉에 연결 작동하여 7,000V 이상의 특고압 활선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절연전선을 피박할 수 있게 됐다. 본 발명품들을 품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윤화 Pin」: 「파라렐크람프로 설치용 P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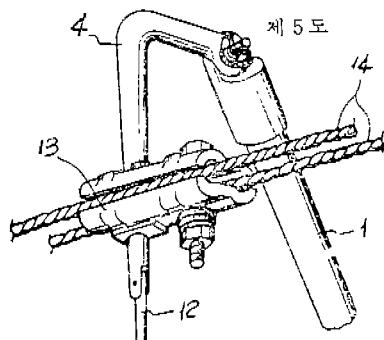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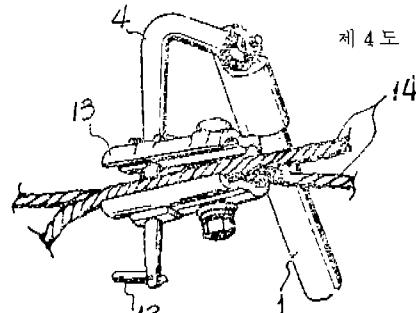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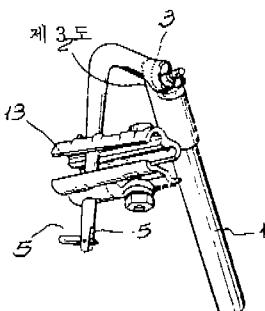
이 공구는 파라렐크람프를 활선로에 연결 부착시키고자 할 때 유동성 있게 자유자재로 부착시킬 수 있도록 만든 특수공구이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선접속 파라렐크람프의 각 종류의 모양은 전선 「사이즈」에 따라 크고 작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그 파라렐크람프의 자체 끝부 불트 구멍은 모두가 같다. 파라렐크람프를 반 쪼개어 놓고 바로 불 때 알미늄 주를과정에서 뽑기 좋게 「테퍼」형 구멍내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 구멍의 「테퍼」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테퍼」형을 지닌 「윤화 Pin」이다.

기선 활선공구인 유니버설 스틱의 끝단홀에 부착시켜 사용하게 되며, 파라렐크람프 구멍에 「윤화 Pin」을 약간 탄력적인 힘으로 밀어 끼울 때 힘있게 꽉 끼여 물리기 된다. 한번 꽉 끼여 물린 다음에는 파라렐크람프와 Pin을 각각 잡고 빼려고 해도 안빠지는게 특징이다. 그러나 전선에 부착시킨 다음 좌우로 약간 돌려 유동시킬 때 매끄러워 빠져 나오는 것이 이 공구의 생명이다.

Pin 끝에 안전 Pin 장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파라렐크람프가 잘못 끼워져 떨어질 때 밑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재질: SUS 스테인리스 304



## 「써콘볼트」: 「써비스콘넥타를 체결작업용 보و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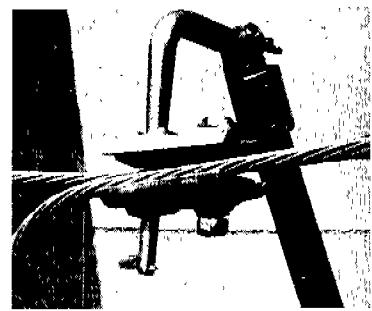
써비스 콘넥타를 분리해 보면 3개의 부속품과 2개의 불트로 구성된 자잘구레한 부속이라서 감히 활선이란 불가하게 생각해 왔으며, 만약 기체적인 공구로 써비스콘넥타를 집어올린다 하더라도 부속을 분리해서 채운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나 이 「써콘볼트」는 3/8" 및 1/2"의 테코나사로 깎아 써비스콘넥타 부속을 끼어 박아도 한도이상 더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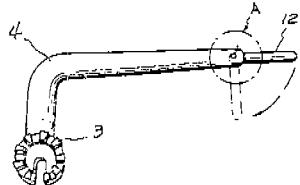
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써비스콘넥타 부속이 「써콘볼트」 몸체에서 빙빙 자유자재로 들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써콘볼트」 원 몸체에서는 써비스콘넥타가 밀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마루턱을 형성했으며, 원 몸체는 「테퍼」형으로 깎아 복스알을 돌릴 때 맞부딪치지 않도록 적당한 굽기로 뽑아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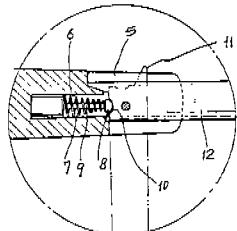
기설분 유니버설 스틱에 끝단홀에 부착시켜 사용하게



제 1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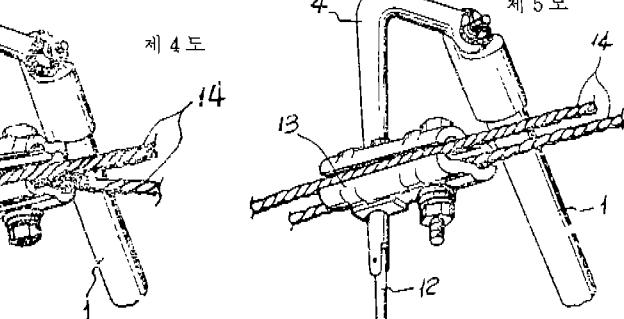


제 2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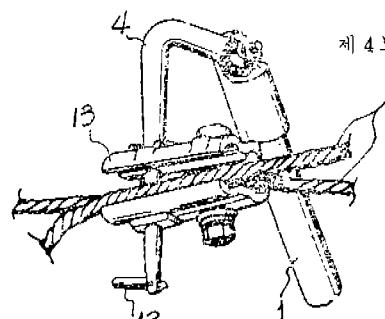


(그림-1) 윤화 P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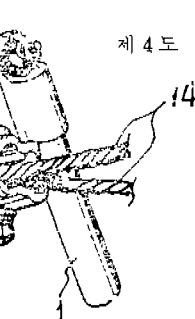
제 2 도



제 3 도



제 4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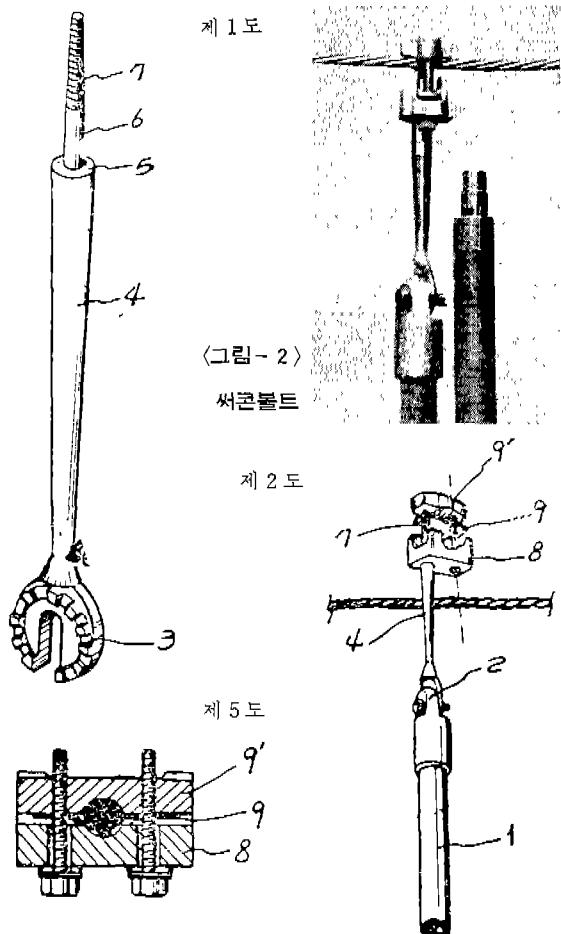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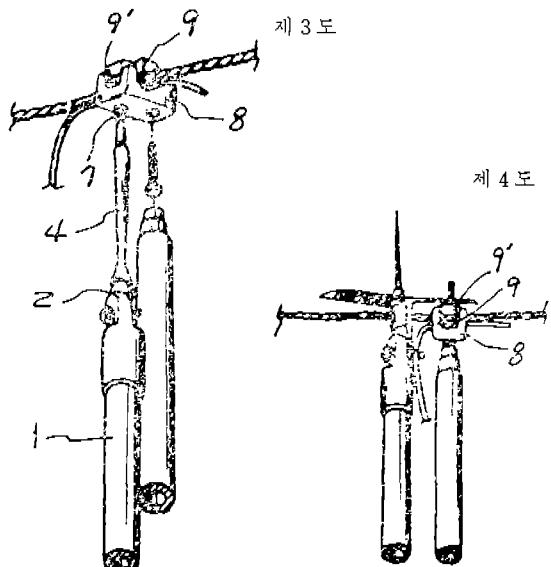


제 5 도

되며 충전부에 서비스콘넥타 윗부속이 딱 맞게 끌려 블  
인 다음 볼트를 끼워서 서비스콘넥타 밑의 날개를 윗  
부속에 당도록 1개의 볼트를 조인 다음 「써콘볼트」를  
빼내므로써 베낸 후에도 서비스콘넥타는 충전부에서 탈  
락되지 않는다.

이때 또 한구멍이나 볼트를 끼운 다음 COS/차리드를  
끼우고 부스알로 꼭 조일 때 팔선으로 충전된 선에다  
완전하게 리드를 연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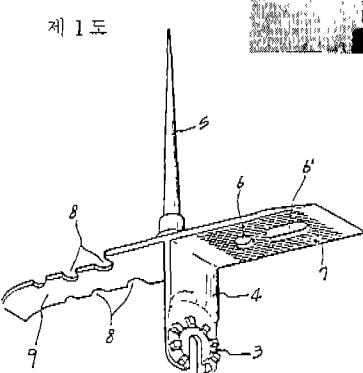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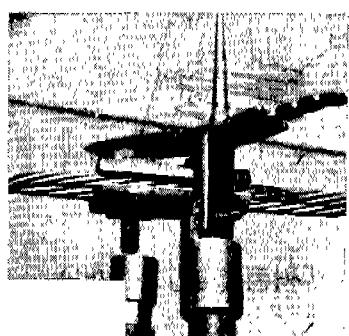
재질 : SUS 스테인레스 304



### 「써콘볼트」: 「전선 접속구 설치용 보조공구」

파라렌크람프 및 서비스콘넥타를 22.9kV-y D/C 이상의 특고압에서 신설할 때 쓰여지는 다목적용 팔선공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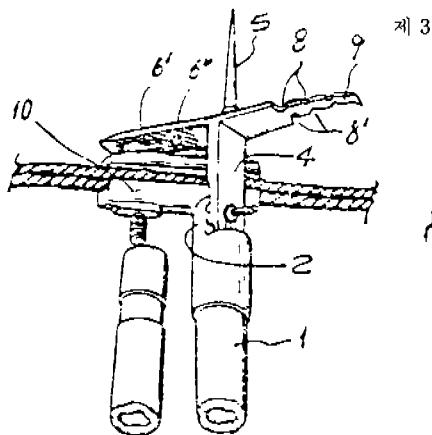
분기선 및 COS1차리드 연결시 파라렌크람프 설치용 「유화Pin」 및 「써콘볼트」에 의해 취부할 때, 파라렌크람프의 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수평선 및 수직선으로 설치된 볼트머리를 눌러 주며, 파라렌크람프가 전선에 안맞을 때 끝 칼날로 들썩거리 잘 맞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또한 서비스콘넥타 밑짜이 볼트구멍에 잘 안맞을 때 뾰족한 Pin모양으로 부분으로 밀착을 끌어다 잘 들어가게 중심을 맞추어 주는 역할도 한다. COS1차리드를 서비스콘넥타에다 끼운 다음 부스알로 조일 때 힘지게 조이기 위해 3개의 흄이 파인 펜털부분으로 고착되게 붙잡아 주는 역할도 한다. 네쪽판에 뚫린 두개의 펜공구멍은 크고 작은 서비스콘넥타를 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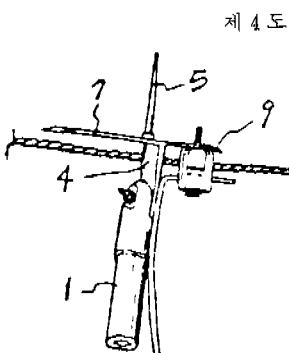
〈그림- 3〉 써콘볼트

서 놀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공구로서 4 가지 역할을 해내는 「윤화 Pin」 및 「씨콘볼트」의 보조역을 담당하는 공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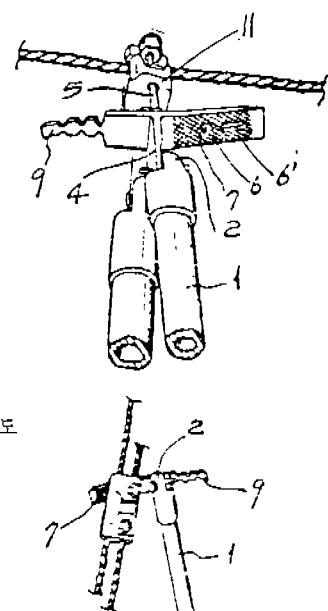
재질 : SUS 스테인레스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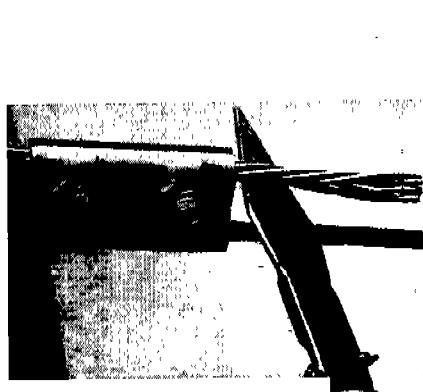
제 3 도



제 4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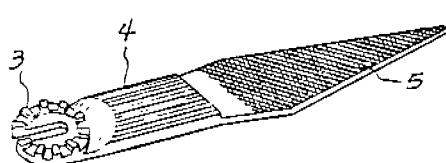
제 2 도



〈그림-4〉

다목적창

제 1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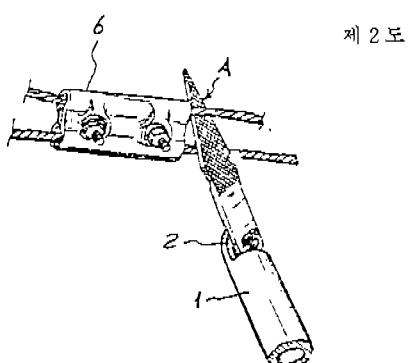


### 「다목적창」 : 「활선작업용 보조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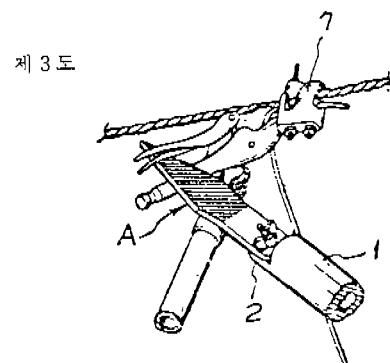
본 공구는 씨 서비스본넥타를 채우는데 22.9kV-y D/C 용 COS 1 차리드를 바이스 뿌라이어로 물어 콘넥타에 다 끼운 다음 바이스 뿌라이어 자루에 「다목적창」을 넣어서 비틀 때 뿌라이어 자루에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딱 꿰쳐주어 충전부에서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파라렐크램프를 채운 22.9kV-y D/C급 이상의 선로에서 Heating이 발할 때 다시 접촉이 잘되게 다목적창을 비틀어 홈에다 고쳐 넣는다거나 재차 또 한 개를 옆에다 덧붙혀 채우고자 할 때 파라렐크램프 홈에 들어가게 선과 선 사이를 창으로 비틀어 조정해 주는 부속공구이다.

재질 : SUS 스테인레스 304



제 2 도



제 3 도

## 「파라렐크램프복스」: 「활선 작업용 렌치 소켓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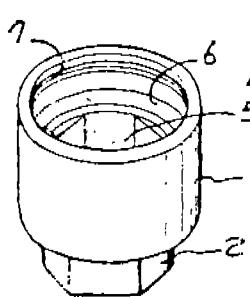
기설용 복스알은 19% 철제용 백기울린 복스알로서 기체에 사용하는 낫트조임 복스로서 필수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전주위에 파라렐크램프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것을 복스대를 사용할 경우 낫트는 복스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어 있으나 평와셔 및 스프링 와셔는 복스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옆질려지게 된다.

이 복스알은 낫트, 평와셔 및 스프링 와셔를 내부에 담아 복스대가 수평을 이루어도 옆질려지지 않도록 스테인레스로 가공한 외피캡을 가설복스알에다 기운 것이다. 외피캡 내부에 2종력을 만들어 복스알 속에 더 들어가지 않게 해주며 내부 깊이는 평와셔 및 스프링 와셔가 닿으면 캠 내외경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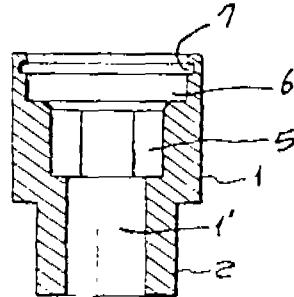
또한 와셔가 들어가는 내경의 흠줄에 곤끈이콤파운드를 약간 발라주면 90° 각이 아닌 180° 각으로 돌려도 와셔가 쓸어아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재질: 기설용 강철 복스알에 스테인레스로 가공한 캠을 끼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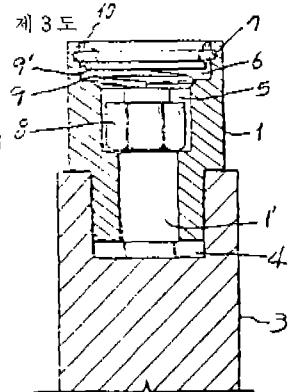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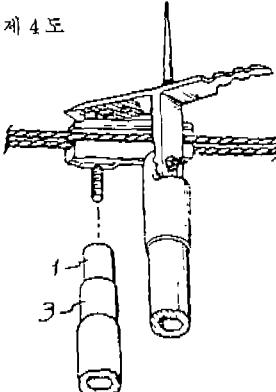
제 1 도



제 2 도



제 4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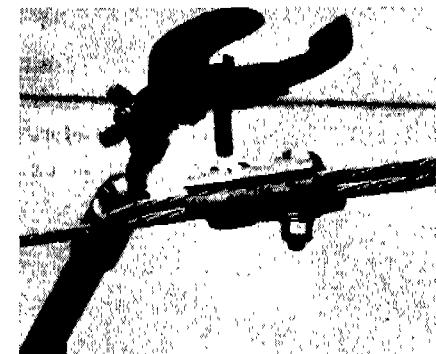
## 「볼트훅크」: 「활선작업용 인슈레이터 포크」

기설용 인슈레이터 포크는 활선작업 22.9kV-y D/C 급 이상의 선로에서 설치된 애자를 필요에 따라 끌어 주는 애자 훅크이다.

즉 활선작업시 애자 종류만 끌어 올릴 수 있는 공구였으나 이 훅크의 본래의 사용도에 지장없게 2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이다.

본 공구의 사용시에 아무런 장애없는 어금니 양쪽부분을 각도 유지해서 흄을 파내어 2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파내어진 흄에 볼트 둥근부분을 물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재질: 기설용 인슈레이터 포크.



〈그림- 6〉

볼트훅크

## 「비틀이」: 「파라렐크램프의 방향전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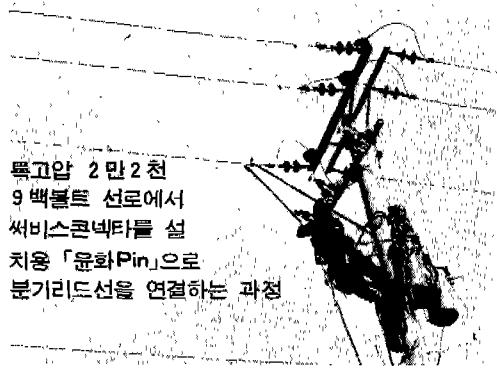
이 공구는 22.9kV-y D/C 이상의 충전된 기설분 파라렐크램프를 공사하기 위해 갑바선 연결된 파라렐크램프를 빼고 갑바선을 분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미 기설된 수평선을 이루고 있는 선로의 파라렐크램프가 하늘방향으로 채워진 것을 홀렉시블 인슈레이트렌치에 복스알을 끼워 랙트를 뺄 때 상대방이 빼기

종도록 파라렐크램프의 방향을 돌려주는 공구이다.

또한 상대방이 복스알을 끼울 때 끼우기 좋게 크램프에 끼워진 낫트를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각종 파라렐크램프의 규격에 관계없이 크램프의 두 짹이 볼은 사이에 걸리게 해서 방향을 돌려줄 수 있으며 유니버설스틱 끝단에 취부하여 사용한다.

재질: SUS 스테인레스 304



### 「조임봉」

낫트, 볼트 조임 및 풀 때(특히 녹슨 것) 또는 손아귀에 힘이 없을 때와 홀렉시불 드렌치봉이 기후가 차가워 미끄러울 때 스틱봉에다 조임봉의 갑바끈을 잡아 돌려주므로 상당한 힘을 가해 조여지게 되며, 드렌치봉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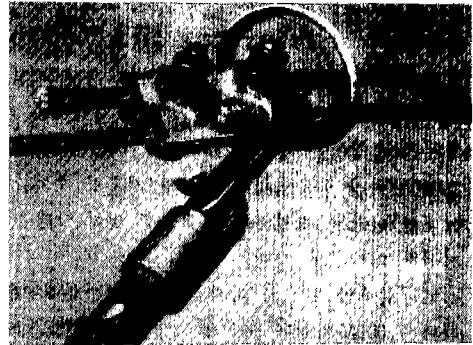
재질: 은행나무 또는 느티나무 끈: 갑바끈

### 「활선 바이스 뿌라이어」

활선 바이스 뿌라이어는 22.9kV-y D/C이상급의 1차리드 연결시 W<sub>0</sub> 5.0% 뺏뻣한 동선을 접어서 써콘에 채우는데 필수용이며 S/S에서 지지애자 와셔 및 어谬물체를 들어 올려주는 공구이다.

위험 표시판을 전선에 부착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재질: SUS 스테인리스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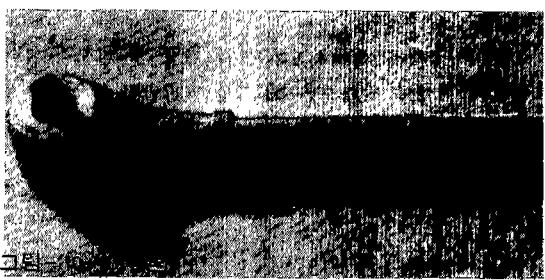
〈그림-7〉 비틀이



〈그림-8〉 조밀봉



〈그림-9〉 활선 바이스 뿌라이어



〈그림-10〉 리ച不尽

### 「리ച不尽」

「리ച不尽」은 큰 공장 건설시나 기계제작 분야에서 많음 볼트·낫트를 조이고 때는데 사용되는 공구였다. 이 「리ච不尽」을 주로 S/S에서 사용하게 되며 D/C에서 %수가 깊은 전선의 모든 접속 금구류 및 낫트·볼트가 하늘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링크스틱헤드로 「리ච不尽」 몸체를 물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공구로는 불가했던 것을 이 「리ච不尽」을 이용하여 해결해 볼 수 있다.

재질: 기설용 「리ච不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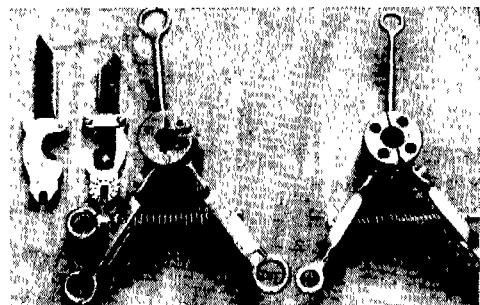
### 「특고압 전선의 피박공구」 및 「전선의 피박칼」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결연전선을 사용하게 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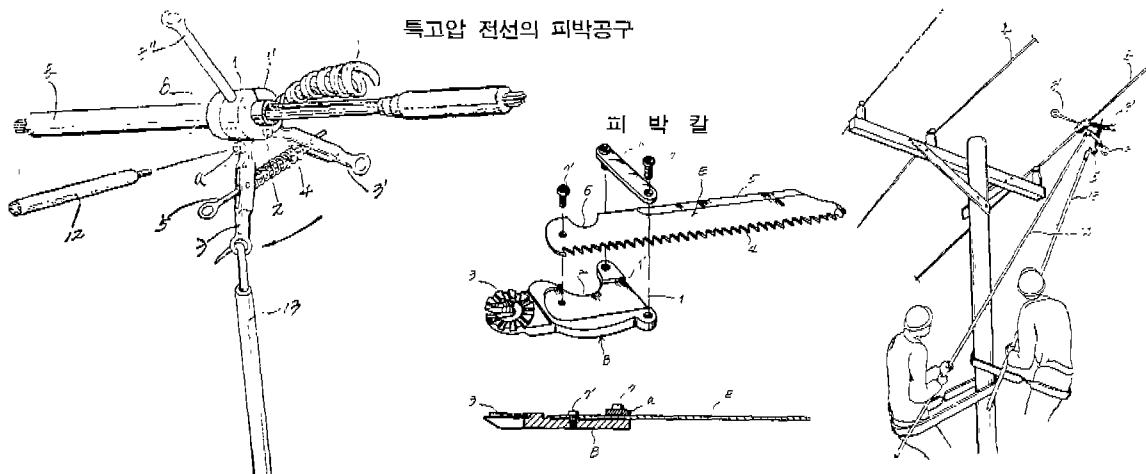


절연전선의 피박재질이 포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연질성을 떠나 겨울철에는 경질로 변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피박기로서는 겨울철에는 정전 상태에서도 피박이 불가능했다. 7,000V 이상 특고압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발명품 「특고압 전선의 피박공구」이다.

이 「특고압 전선의 피박공구」를 절연봉에 연결 작동하여 7,000V 이상의 특고압 환선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절연전선을 피박할 수 있게 했다.



〈그림-11〉 특고압 전선의 피박공구 및 전선의 피박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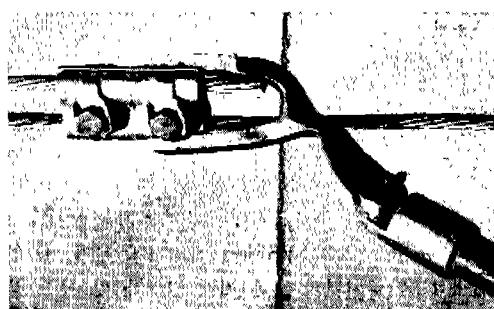


### 「U형비틀이」：「파라렐크램프의 U형 방향전환구」

파라렐크램프의 핫트를 상대방이 그램프에 끼울 때 승주한 자세로서 끼우기 좋도록 각도를 유지시켜 비늘어 주는 공구이다.

파라렐크램프 사이즈별로 끼워 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면이 날카로운 90°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볼트미리와 낫트에 부착시켜 끼여 비늘게 된다. 유니버셜 스틱 끝단에 쥐부하여 사용한다.

재질 : SUS 스테인레스 304



〈그림-12〉 U형 비틀기

